

“경제강국·교량국가·평화경제로 광복 100년 원코리아 우뚝”

■문 대통령 경축사 주요 내용

15년만에 독립기념관 경축식 ‘진정한 광복’ 효과 극대화 임기내 비핵화·평화체제 달성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 원코리아(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광복 100주년을 바라보는 새로운 한반도의 청사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지향점 아래, 책임있는 경제강국·교량국가·평화경제를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 한반도를 넘어선 세계의 평화·번영을 이끄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포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런 청사진을 밝히는 장소로 독립기념관을 선정, “진정한 광복” 메시지 효과 극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 15년만에 독립기념관에서 ‘진정한 광복’ 메시지 부각=광복절 경축식이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것은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2년 차인 2018년에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경축식이 열렸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 문 대통령이 ‘대일 메시지’ 발신 장소로 독립기념관을 고른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독립기념관은 문 대통령 경축사의 핵심 메시지를 가장 잘 부각하는 장소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자제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일본이 이웃나라에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기 우리는 바란다”고 언급하는 등 과거사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뚝뚝뚝 걸어갈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며 국일(克日) 의지를 드러냈다. 또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려 한다”며 “진정한 광복”을 이루겠다는 뜻도 밝혔다.

◇ ‘새로운 한반도’ 3대 목표 제시…국일 넘어선 번영 선도국가=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시인 김기림의 ‘새나라 송(頌)’의 문구를 인용하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지향점을 밝혔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 원코리아(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2045년을 바라보는 장기 비전과 함께 문 대통령은 이 청사진을 현실로 이뤄내기 위한 3대 국가운영 목표로 ▲책임있는 경제강국 ▲교량국가 ▲평화경제를 제시했다.

이 중 ‘책임있는 경제강국’과 ‘교량국가’를 꺼내든 배경에는 이번 일본 경제보복 사태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운명의 주인으로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일본 경제보복 사태 등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강’이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교량국가 구상에는 극일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계의 번영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포부를 담았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돼 왔다고 돌아보면 서로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지정학적 특성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인 셈이다.

아울러 이날 문 대통령이 교역국가 구상을 선보이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교량국가로 가는 첫 걸음”이라며 남북 협력사업을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 평화경제 의지 재확인=문 대통령이 3대 목표 가운데 마지막으로 꺼내든 것은 ‘평화경제’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바탕으로 경제발전의 새 동력을 얻겠다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한다면서 “그 토대 위에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



15일 오전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15일 오전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제74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만세삼창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침탈 극복, 극일 이뤄내는 기회로 삼자”...광주시·전남도 광복절 경축식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주와 전남에서 경축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광주시는 이날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광복회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경축식에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이병환, 박생진, 이계동 애국지사의 후손들에게 건국포장 및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고, 민족정기 선양 등에 앞장서 온 공로로 박종배, 양상수, 박민아, 장아

름, 윤덕훈 씨에게 시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용섭 시장은 “‘야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일본의 경제침탈을 막아내고, 무너지던 한국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할 역사적 소명이 우리 광주에 주어졌다”고 말했다.

이 시장과 김동찬 시의회 의장, 장휘구 광주시 교육감과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명,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경축식에 앞서 광주독립운동기념탑에 헌화·참배하고,

경축식 이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의 종각에서 ‘민주의 종’을 타종했다.

전남도는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어 도민과 함께 진정한 국일을 이뤄나갈 것을 다짐했다. 경축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광복회원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축식에서는 국권 회복을 위해 순국한 모재명, 장영안, 한상업, 장태중 등 전남지역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

김영록 지사는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적반하장적 수출 규제 강화조치에 대해서는 정부 대응에 발맞춰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 전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도민과 함께 진정한 국일(克日)을 이뤄내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청 1층 윤선도홀에서는 전남지역 독립운동가 소개 및 사진 전시, 무궁화나무 전시, 무궁화 나눠주기 등 도민들에게 선열들의 독립정신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겨보도록 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례적 ‘경제연설’ 된 문 대통령 경축사

‘경제’ 39번 ‘평화’ 27번 언급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세 번째 광복절 경축사는 역대 대통령들의 경축사와 비교해볼 때 이례적인 ‘경제 연설’이 됐다.

그동안 대통령들의 광복절 경축사 주제는 한반도 평화 내지는 대일 관계와 이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올해 광복절 경축식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등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내려진 뒤에 열린다는 점에서 경축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일(對日) 메시지의 수위에 쏠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경축식에 참석해 발표한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이루겠다는 의지와 방법론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7800여자로 쓰인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로, 총 39번 등장한다. 2017년과 2018년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평화’는 27번 등

장해 그 뒤를 이었다.

문 대통령이 그간 가장 강조했던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 대신 ‘경제’를 가장 많이 언급한 것도 결국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 등으로 국내 경제가 90년대 후반 못지않은 위기를 맞닥뜨렸다는 현실 인식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2017년(7700여자)과 2018년(6100여자)에 비해 경축사 내용이 길다는 점은 절박한 경제상황 속에서 위기를 돌파할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자 문 대통령이 더 많은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다만 문 대통령이 ‘경제’에 이어 ‘평화’를 많이 언급한 것을 보면 자유무역 질서를 거스른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이겨낼 해법으로 한반도 평화를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에서 남북이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경제 번영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바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김기림의 ‘새나라송’ 인용

납북 시인, 모더니즘 기수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뿜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퍼져/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납북시인이자 참여문학의 선봉인 김기림 시인을 불러냈다.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다”며 시 한 구절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인용한 시는 납북시인이자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기수인 김기림의 ‘새나라송(頌) 일부다. 1948

년 간행된 시집 ‘새노래’에 실렸으며 해방 뒤 썼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라는 시구는 이번 경축사 주제와 잘 맞아떨어진다.

김기림은 평론가로서 모더니즘을 비롯한 서양 문학사조를 소개하고 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모더니즘 기수였지만 한편으로 시대정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회 참여적 견해를 드러냈다.

1908년 함경북도 성진에서 태어난 그는 한때 조선일보학예부(문화부)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광복 후 ‘조선문학가동맹’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대학 강의를 했지만 6·25 때 납북된 이후 소식이 끊겼다. 1988년 해금 조치로 우리문학사에 다시 등장한 김기림은, 한동안 납북 모더니즘에서 소외돼 있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1566-9988

8 5 1
116 40 point

1 6 5 2 4
J10 20 point

6 8 2 4 7 5 8 1
J8 14 point

2 5 1 6 4 9 7 8 3
J7 12 point

1 3 0 7 5 8 4 9 2
J6 10 point

2 4 6 3 7 1 2 8 0
J5 8 point

4 0 2 8 1 0 9 7 3
J3 6 point

5 7 6 2 1 4 3 0 2
J2 5 point

5 7 1 2 3 4 5 6 7 8 9 0
J1 4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J1+ 3 point

●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 눈보기를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눈보양빌딩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